



전주대, AI 성과 우수 장학금 71명에 수여

전주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달 31일 AI 인재를 육성하고자 4,000만원 상당의 성과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융합대학 사업단 참여학과 71명의 학생이 선정됐다.  
1일 전주대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하는 AI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자 관련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융합대학사업단 고선우 단장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주도할 탁월한 인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학과 정강현(3년) 학생은 "이번 장학금 수상을 통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았음을 느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야에 도전과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상담 유관부서 세미나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1일 2023년도 통합상담 유관부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고용 충격과 청년기 경력설계 관련 다양한 상담 요구에 따른 종합서비스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의 진로 취업, 심리, 적응 학교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요구에 대해 전문부서의 추진 과제와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주축으로 교내 학생 상담 지원 부서 및 빅데이터센터가 참여해 청년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 23명 수료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 CDS(Citizen Data Scientist)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지원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8일~9월 1일까지 전주대 공학 1관에서 진행, 재학생 28명 참가해 23명이 수료했다.  
이번에 수료한 김진우 학생(전기전자공학) 외 7명은 오는 10월 말 전국 12개 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제1회 전국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 환경정화운동 실시

바르게살기 운동 김제시협의회(회장 이권재) 지난달 31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김제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는 지난 1일 김제에서 개막되어 3일간 실시된 전북도민체전 준비 일환으로 김제시 건설과 직원들과 연합하여 실시되었으며, 서암사거리에서 후신교차로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권재 회장은 "민·관이 연합하여 깨끗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여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직접 1단증, 현재 일흔의 목표”

김세웅 전 무주군수, 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서 수련

18대 국회의원(전주시 덕진구)과 민선 1·2·3기 무주군수로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무주 유치에 일등공신인 김세웅 전(前) 군수. 그가 직접 전국을 뛰어 다니며 무주 유치 타당성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으로 무주군민들의 동참 열의를 이끌어 낸 일흔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태권도원이 무주군 설립전에 개원하고 10년을 바라보는 지금, 군정 내내 태권도에 몸 바쳤던 그의 애정은 달라졌을까?  
1983년생 일흔의 나이인 김 전 군수는 매주 두 차례 태권도를 방문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었다. 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남녀노소 지역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사업으로 태권도원이 2018년에 신청·유치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태권도는 물론 헬스와 요가까지 전문 강사를 통해 지역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를 맡고 있는 이종우 사범은 "일흔의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 수련에 임하고 있어 다른 수련생들에게 모범이 된다. 무주 실버태권도를 즐기는 대표 회원"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군수는 "태권도원을 무주에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제 확실히 자리 잡은 성지 태권도원의 공공스포츠클럽에 참가하며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태권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태권도원 유치 등의 공로로 받은 명예 7단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1단 증이 현재 일흔의 목표"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임태규·황하연 학생, 국제 창업경진대회서 '대상'

전북대학교 임태규(소프트웨어), 황하연(유기소재분류공학) 학생이 운동 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로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유니브스타 글로벌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상인 호치민 과학기술부장(DOST)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니브스타 글로벌 콘테스트는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황지욱)가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육성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처음 마련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이 1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냈고, 예선을 거쳐 국가별로 선발된 10개팀을 대상으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 아이디어를 고도화했다. 이후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메가트렌드 박람회에서 최종 결선을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을 수상한 임태규·황하연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실시간 매칭으로 운동 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갑작스러운



운동 약속의 경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쉽게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것.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운동 초대장을 작성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 운동 메이트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장은성 기자

남천현 총장,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 캠페인'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1일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2023 국민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교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작했다.  
남천현 총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석 가족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기전대, 서천군 지역산업맞춤형 창업지원 경진대회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8월31일 '서천군 지역특화 창업선도사업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주동안 기본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서천군 지역특화 창업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한화정 예비창업자가 천연염색 및 모시를 활용한 반려견 의류제작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김정희 예비창업자가 무화과를 활용한 식음료개발 주제로 수상했다. 이 외에도 보자기를 활용한 포장방법, 마을공동체 공유키친 운영, '테러링 도시락 제작' 등으로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한화정 예비창업자는 "서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해외 영어체험 성과 보고·발표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지난달 31일 2023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성과 보고와 함께 발표회를 실시했다.  
뉴질랜드 영어체험을 다녀 온 학생들은 학부모 앞에서 뉴질랜드에서 직접 촬영 및 제작한 브이로그를 상영하고 영어로 소감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켜 본 학부모와 학교 지도교사는 큰 호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기쁘고, 교육적이고 치밀하게 잘 구성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도통동에 설치된 점심시간 무인 민원함 '호응'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함을 설치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받고 있다.  
무인민원함은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경우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무인민원함에 넣어두면 담당자가 이후 민원을 확인해 즉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작된 후로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점심시간에 헛걸음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에 착안해 운영하게 되었다.  
무인민원함을 통해 본인확인 없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도 전달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동 민원실에서는 매일 점심시간 이후 무인민원함을 열어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처리하고 있다.  
김윤자 도통동장은 "동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 많은 이용을 바라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합동 소방훈련

남원의료원은 지난달 31일, 남원소방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상황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도상훈련, 자체 종합훈련,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으며, 자체 훈련을 통해 각자의 임무수행 절차를 숙지하고, 합동 소방훈련으로 남원소방서 및 유관기관의 신속대응체계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2층 가족민남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가정, 메슈야에 따라 박주영 원장의 총괄 지휘를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신고, 직원 및 환자 대피 유도 중요 문서 반출, 소화반 화재 초동 진압 등의 훈련과 함께 화재신고를 받은 남원소방서가 출동하여 실전과 같은 화재 진압과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 합격을 부르는 취업사진관 운영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3 합격을 부르는 취업사진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신청한 졸업생 10명과 함께 취업 사진 촬영을 지원해 취업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의욕을 높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사진 촬영 지원과 더불어 컨설턴트와 함께 진로취업에 대한 개별 상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들이 이번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준비에 있어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 공원·산책로 등 범죄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최근 물자매복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해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팀(CP)을 중심으로 정읍지역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공원·둘레길 주변 CCTV 적정 설치 유무 등 집중 점검으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읍시 관내 주요 공원과 인적이 드문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의 정상 작동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둘레길에 대한 CCTV 위치, 작동상태 등 방범시설물 점검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정읍=김대환기자